『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9
pp.323-341 ISSN : 1229-9618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 사례와 원인에 대한 연구*

김현재**

【목 차】

1. 서론
2.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개념 정의
3.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사례
   1) 뇌물수뢰 2) 가족 연루 부패
   3) 관직의 대물림 4) 조직적 부패
4.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원인
   1) 인치 2) 가족주의
   3) 선물문화 4) 번문욕례(繁文縟禮)
   5) 일당 독재체제
5. 결론

【초록】

중국과 베트남에서 관료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관료부패가 유일 정당인 공산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동일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료부패의 실태를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도출해보는 한편, 이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료부패가 갖는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공직부패 사례를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합, 분석하는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키워드】 중국, 베트남, 관료, 부패, 반부패, 뇌물

---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hjkimgogo@ysu.ac.kr)

1. 서론

부패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 모든 체제에서 발생하며, 정권 안정과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 요소와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권력의 행사자인 관료[1)]들의 부패문제는 역사상 모든 국가, 모든 사회가 겪어야만 했고, 현재도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항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여파는 일반 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킴으로 말미암아 국가기능을 비효율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특정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료부패의 만연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관료부패는 괴물적 존재(monstrous existence)로서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 체제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공산당 일당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료부패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그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들이 갖는 공통점을 도출해 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료부패가 갖는 확연한 특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참고함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공직부패 관련 사례, 조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다. 따라서 이 글은 문헌자료의 종합, 분석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이 글의 구성은 2장에서 우선,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관료부패에 대한 개념을 중국, 베트남의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 비교해보고, 3장에서는 양국 관료부패의 주요 공통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양국 관료부패의 주요 공통된 사례들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그 원인을 고찰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가 모두 갖는 행태적, 환경적, 제도적, 정치·체제적 특징을 제시하고, 향후 이들 두 나라의 관료부패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척결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본다.

2.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개념 정의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관료부패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학자들은 관료부패를 주로 법과 도덕의 일탈행위 또는 권력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고인민검찰원(中國最高人民检察院)의 짠부량(詹復亮) 검찰원은 관료부패를 “공무원이 공인된 사회규범 즉, 법률규범, 기율규범, 도덕규범 등을 위반해 사리를 도

1) 이 글에서는 중국, 베트남의 공산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 등을 비롯한 각종 국영기업체 등 일체의 공공기관, 국가 조직체 등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공무를 담당하는 구성원과 지도층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관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부 인용 문구에서는 원문에서 사용한 ‘공무원’, ‘공직자’라는 용어를 관료의 협의로 보고, 이를 관료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모하는 행위"로 보고[2] 교육부 고등학교사회과학발전연구센터(教育部高等学校社会科学发展研究中心) 탠신밍(田心銘) 주임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존의 사회관계를 파괴 혹은 부식시키는 행위"로 보며[3], 닝샤후이족(宁夏回族) 자치구 중국 공산당 당위원회 리찌엔화(李建華) 서기는 "국가공무원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본다.[4] 또한 황바이렌(黃白煉)은 "국가공무원이 공공권력을 비 공공영역에 돌리는 행위, 즉 공공권력의 운용이 사회제도, 법류 혹은 도덕규범을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개인이나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5]

한편,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정부, 법조계, 학계 등에서 제시한 부패의 개념 정의가 '당과 정부, 경제단체, 사회단체 소속 관료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일',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지위를 가진 자가 본인 또는 본인 가정의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와 단체의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정권 기구의 지위, 권한을 이용해 인민의 재산을 수탈, 횡령하고 뇌물을 수뢰하는 행위', '당과 정부의 각급 기관의 권한, 지위를 가진 당원, 공직자의 금전상 이득을 얻기 위한 권한의 사용 행위' 등과 같이 관료를 부패 행위의 주체로 삼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부패는 곧 관료부패임을 의미하는데, 베트남 부패방지법 제1조에서도 부패를 '직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위해 그 직위,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공안부도 부패를 '지위,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국가, 단체, 인민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초래하는 또는 정부 기관, 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 시민의 합법적 이익, 권리에 손실을 가하는 위협'으로 정의하며, 관료를 부패 행위의 주체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공산당은 이미 1994년 1월 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관료주의와 부패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1996년 1월 전국 공산당대회에서는 "관료주의와 관료의 도덕성 상실이 당과 정부를 약화시키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침식시키며, 당과 정부의 주장과 정책을 왜곡시킨다."[6]고 비판했으며, 최근에도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이 "우리 자신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비위 관료들에 대한 처벌을 계속해 나갈 것"[7]이라며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청산에 대해 역설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사회에서 부패의 본질적 영역이 관료사회이며, 베트남의 부패는 곧 관료부패임을 보여준다.

전술한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또는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행

---

2) 詹復亮,『當代中國反腐敗問題 與對策』,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p.3.
3) 田心銘,『反腐敗論』, 四川 教育出版社, 1997, pp.33-34.
4) 李建華,『腐敗論』, 中國工業大學出版社, 1997, p.15.
5) 黃白煉,『遏制腐敗』, 人民出版社, 1997, p.3.
6) 김현재,「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8.06, pp.4-5.
7) 연합뉴스, 베트남 '부패와의 전쟁'에 고삐…군부도 칼바람, 2018.04.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059400084.HTML?input=1195m

위의 주체인 관료가 공공재산을 사적이익의 추구 또는 획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종합, 정리하면 '관료가 개인의 사리와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법과 원칙을 위반하며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도덕적, 불법적인 일탈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3.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 사례

1) 뇌물수뢰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의 대표적 부패행위는 뇌물수뢰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각종 경조사를 통해 기업체, 산하기관,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각각 일반적으로 뇌물을 '홍바오(紅包)'[8], '띠엔 화 홍(tiền hoa hồng)'[9]으로 부르는데, 우선, 중국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패 혐의 총 32,567건 중 관료가 연루된 뇌물범죄혐의가 18,464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10]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부패 혐의로 해임된 성부급(省部級)[11] 이상 고위관료 총 75명 중 약 63%에 해당하는 47명이 뇌물을 수뢰한[12] 사실을 볼 때 중국 부패 문제에서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관료들의 뇌물수뢰 사건들 중 일부 대표적 사례로는 2015년 4월에 지젠예(季建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이 1999년 말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1,132만여 위안에 달하는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13] 6월에는 천안중(陳安衆) 장시(江西)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겸 장시성 총공회 주석이 기업인 등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10만 위안상당의 재물을 부당하게 챙긴 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바이언페이(白恩培) 윈난(雲南)성 서기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칭하이(青海)성 서기, 윈난성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 등을 지내는 동안 광산 개발권 등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승진 과정에서 2억 4676만 위안의 뇌물을 챙긴 것이 드러나 사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14] 11월에는 자오리핑(趙黎平)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거액의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그리고 주밍궈

8) 세뱃돈이나 축의금 등을 넣는 '붉은 봉투'를 의미하나 현재는 뇌물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9) 수수료, 커미션(commission)을 의미하나 뇌물의 뜻으로도 널리 쓰인다.
10) 류지웅, 「중국의 공무원 부패통제 관련 현황과 법령에 관한 연구」, 『2014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4, p.10.
11) 장차관급
12) 연합뉴스, 중국 부패 고위관료들 평균 뇌물수수액 27억원, 2014.0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10951
13) 아주경제, 중국 뇌물 20억원 비리관료 징역 15년형, 2015.04.07. http://www.ajunews.com/view/20150407151935942
14) 헤럴드경제, 중국 뇌물 규모도 대륙급?…410억 원 역대최고 뇌물 관료에 사형유예, 2016.10.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09000274

(朱明國) 광둥(廣東)성 정협 주석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충칭(重慶)시, 광둥(廣東)성 등으로 재직하면서 1억 4천 100만 위안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사형과 사형집행유예[15]를 선고 받았다.[16]

2017년 5월에는 왕바오안(王保安) 국가통계국 국장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 차관 및 국가통계국장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타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그 대가로 약 1억5428만 위안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17] 7월에는 루웨이(魯煒)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모젠청(莫建成) 재정부 상주 기율검사 조장, 장제후이(張杰輝) 허베이(河北)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주임이 직위를 이용해 타인들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기소됐다. 9월에는 황싱궈(黃興國) 톈진(天津) 시장(市長)가 직위를 이용해 4천만여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3월에는 탄광사업 승인을 빌미로 개인 사업자로부터 약 25억 위안의 뇌물을 챙긴 장중성(張中生) 전 뤼량(呂梁)시 부시장에 대해 사형 판결을 선고받았고,[18] 5월에는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베이징(北京)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농업부 부장, 지린(吉林)성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충칭시 당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약 1억7000만 위안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9] 7월에 발생한 '가짜 백신'사태[20]에서는 백신 제조업체가 지난 17년간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푸젠(福建), 광둥(廣東) 등에서 보건 당국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보건 당국과의 유착해 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중국 제약업계에도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뇌물수뢰가 관료부패의 대표적 부패행위로 꼽힌다. 이는 이미 2014년 베트남상공회의소가 베트남 내 8,368개 자국 기업 및 1,491개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9,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고, 2017년 3월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베트남에 대한 부패 수준 조사 결과에서도 베트남은 전체 응답자의 65%가 기본적인 공공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1]

---

15)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형을 선고하되, 유예기간은 2년 간 사형집행을 미뤄 이 기간에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없을 때는 무기징역으로, 큰 공헌을 하거나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감형된다.

16) 연합뉴스, 中 '고위층 범죄엄단'…살인 혐의 장차관급에 사형선고, 2016.11.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176200083.HTML?input=1195m

17)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국가통계국 '왕바오안' 전 국장, 250억 뇌물 수수혐의 인정, 2017.05.13.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5130905189420d6eb469fd3_1&md=20170513091911_J

18) 서울경제, 시 주석 집권 후 첫 부패공무원 사형 판결, 2018.03.28.
http://www.sedaily.com/NewsView/1RX5NBRPAA

19) 아주경제, 쑨정차이 전 충칭 당서기, 288억원 뇌물수수로 무기징역, 2018.05.09.
http://www.ajunews.com/view/20180509082639210

20) 창춘창성(長春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품질 미달에 생산 데이터까지 조작된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과 광견병 백신을 대량으로 판매했다가 발각되자 최근 전량 회수했다. 해당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산둥(山東) 성과 허베이(河北) 성을 중심으로 3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1) News1, 아태 9억명 "작년에 뇌물 줬다"…韓 "대처 미흡", 2017.03.07.

특히, 베트남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기업인들 중 66%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통상 관료들에게 반드시 뇌물을 줘야한다고 답했다고,[22] 2012년 세계은행 조사에서는 58%는 뇌물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59.2%는 사업상 행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뇌물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답함으로써[23] 기업인들이 관료들의 주요 뇌물수뢰 대상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2014년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 경영상 애로사항을 취합 발표한 자료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주로 통관, 세무, 환경, 노동허가 등의 업무수행 시 담당 관료들의 뇌물 요구가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데서도 밝혀졌다.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 최근 2014년 3월에 '응오 안 따오(Ngô Anh Tảo)' 베트남철도청 차장, '쩐 꾸억 동(Trăn Quốc Đông)' 철도사업관리위원장 등이 일본의 ODA자금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에서 일본 컨설팅업체 일본교통기술(Japan Transportation Consultants)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미화 약 78만 달러를 수뢰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 있고,[24] 2015년 7월에는 세계은행의 ODA자금 미화 총 5억 달러로 이뤄지는 교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관료들이 프로젝트의 관리 자문으로 참여한 미국 기업 '루이스버저 그룹(Louis Berger Group)'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25]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2015년 10월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정부 기구 내에서 뇌물 수수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26]

2017년 5월에는 딘라탕(Đinh La Thăng)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당 서기장, 8월에는 호 티 낌 토아(Hồ Thị Kim Thoa) 산업무역부 차관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해임됐고, 10월에는 응우옌 쑤언 아인(Nguyễn Xuân Anh) 다낭(Đà Nẵng)시(市) 당 서기장이 기업으로부터 13억 동 상당의 차량과 고급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 2018년 6월에는 전·현직 정보통신부 장관 응우옌 박 손(Nguyễn Bắc Sơn)과 쯔엉 민 뚜언(Trương Minh Tuấn)이 국영 이동통신사 모비폰(Mobifone)이 현지 민간 위성방송 업체의 지분 95%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총리 승인도 없이 인수를 허가해 3억 8,5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데 있어서 뇌물수뢰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27]

2) 가족 연루 부패

---

http://news1.kr/articles/?2929566

22) 베트남기업 66% "원활한 사업 위해 뒷돈 써야한다" 2015.0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8/0200000000AKR20150418021200084.HTML? input=1195m

23) Ngân hàng thế giới, *Tham Những từ góc nhìn của người dân, doanh nghiệp và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2012, p.40.

24) Báo Mới, Nghi án nhận hối lộ vốn ODA từ JTC: Bộ Công an vào cuộc, 2014.03.25.
https://baomoi.com/nghi-an-nhan-hoi-lo-von-oda-tu-jtc-bo-cong-an-vao-cuoc/c/13395244.epi

25) Báo Thanh niên, Công ty Mỹ bị phạt 17,1 triệu USD vì hối lộ tại VN và châu Á, 2015.07.19.
https://thanhnien.vn/thoi-su/cong-ty-my-bi-phat-171-trieu-usd-vi-hoi-lo-tai-vn-va-chau-a-586875.html

26) 연합뉴스, 베트남, 공직부패 '골머리'…"피해 미변상땐 감형·사면 배제", 2015.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103300084.HTML?input=1195m

27) 연합뉴스, 베트남 사정한파 전방위 확산…전현직 정통부장관도 겨냥, 2018.06.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3/0200000000AKR20180603021700084.HTML?input=1195m

가족 연루 부패 또한 중국, 베트남 관료들의 대표적 부패행위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가족 연루 부패로 특히, 관료들이 자녀로 하여금 회사를 차려 사업을 벌이게 한 후, 이를 비호, 지원하면서 함께 폭리를 취하는 방법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료 부모의 부패를 세습하는 2세'를 뜻하는 탄얼다이(貪二代)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중국 언론들도 "2014년 한해에만 관료들의 부패사건에서 가족이 연관된 부패사건이 28건 적발됐는데, 그중 60%가 부자(父子)가 연루된 사건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28]

최근 발생한 탄얼다이 관련 일부 대표적 사례들로는 우선, 2013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周濱), 저우융캉의 측근인 궈융샹(郭永祥) 전 쓰촨(四川) 부성장의 아들 궈롄싱(郭連星) 그리고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위원회 주임의 아들 장펑(張峰) 등 3명이 부친들의 특수 관계를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이너서클(Inner circle)'을 만든 후 부친들의 비호 속에서 각종 권익사업에 관여해 뇌물수수 등으로 거액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발각돼 체포[29]됐고, 2014년 12월에는 톄난(劉鐵男) 전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의 아들 류더청(劉德成)을 통해 약 3,558만 위안의 뇌물을 수뢰한 것이 드러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30]

2014년 6월에는 자오사오린(趙少麟·68) 장쑤(江蘇) 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장의 아들 자오진(趙晉)이 부친의 비호를 받으며 중국의 수십 곳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임의로 건물 층수를 높이고,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6월에 체포됐고,[31] 2015년 2월에는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아들 궈정강(郭正鋼)과 며느리 우팡팡(吳芳芳)이 아버지의 비호 속에서 대형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 5억 위안을 챙기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됐다.[32]10월에는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당서기가 그의 아들 저우징(周靖)이 건설사를 차리고 창사(長沙)시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둔치 조성공사 등을 따내며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뢰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33]

한편, 관료의 배우자가 연루된 부패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5년 3월 인민일보 발행 중국경제주간은 '호랑이(老虎)[34]의 부인들, 남편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벌였나'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근년 들어 적발된 고위급 관료의 부패 특징은 가족 부패였

---

28) 아시아투데이, 중 부패관료 아들 "항상 지름길로 가라고 배웠다"...아버지 권세로 뇌물 수수, 2014.12.1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11010006863
29) 서울신문, 中 고위층 2세들 부패도 부전자전, 2014.04.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9013010
30) 세계일보,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지"…'무기징역' 간부의 늦은 후회, 2014.12.11.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11003206
31) KBS뉴스, 中 완공 앞둔 65층 아파트 철거 명령…'청천벽력', 2015.12.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0310&ref=A
32) 국민일보, 중국군 원로 궈보슝 며느리도 당국 조사 받아, 2015.03.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62519&code=61131111&cp=nv
33) SBS뉴스, 中 '탄얼다이' 부패관료 자제들의 탐욕 대물림, 2015.10.1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6313&plink=ORI&cooper=NAVER
34) 고위급 관료를 뜻함

으며, 그 중에서도 관료의 부인들이 남몰래 뒤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중 은행에서 '사모님 클럽(官太太俱樂部)'을 운영하며 공산당 고위 관료 부인들에게 허울 좋은 감투와 고액의 급여를 제공한 뒤 이들의 인맥을 동원해 정부 자금이나 국유기업 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회사가 필요할 때 이들을 통해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등의 방식이 중국 금융계에서 관행화된 것[35]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관료의 배우자 연루 대표적 사례들로는 2014년 6월 쑤룽(蘇榮)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실각하면서 그의 부인 위리팡(于麗芳)도 남편의 장시성(江西省) 서기 재직 시절 광산개발, 토지양도, 부동산 개발 등 여러 국책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관직을 매매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8월에는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윈난(雲南)성 서기가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부인 장후이칭(張慧淸)도 남편의 직권을 바탕으로 관리의 승진과 기업인의 사업을 도우면서 현금, 다이아몬드, 명품시계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7월에는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부인 구리핑(谷麗萍)도 남편의 후광으로 공익재단을 조직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억 위안을 기부 명목으로 받으며 부패자금을 모은 사실이 밝혀졌다.[36]그 외에도 2016년 4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서열 5위, 7위인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관료들의 가족들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37]이 드러나면서 고위 관료들과 그 가족들이 축적한 부정한 재산의 해외 은닉, 돈세탁, 탈세 등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관료의 가족 연루 부패는 고질적 관료부패의 하나로 꼽혀왔다. 그 보편적 유형은 첫째, 관료 본인의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둘째, 가족을 내세워 대신 뇌물을 수뢰하는 경우, 셋째, 가족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배후에서 운영하는 경우, 넷째,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시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38]등이다. 최근 2017년 8월에도 호 티 낌 토아(Hồ Thị Kim Thoa) 전 산업무역부 차관이 국영기업 디엔 꽝 램프(Điện quang lamp)의 대표로 재임할 당시 그와 가족들이 규정을 어기고 회사의 지분 35%의 주식을 사들여 약 7천억 동의 수익을 취한 사실[39]이 탄로 났다.

결국, 베트남정부는 2017년 12월 5일에 "관료의 가족관계자를 부패 발생이 용이한 일부 민감한 업무, 영역[40]에 배치, 발탁, 임명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시한

35) 서울신문, 중국의 '사모님 클럽'을 주목하라, 2017.08.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8500135&wlog_tag3=naver

36) 쿠키뉴스, '고위 관료 부인들, 남편 이름으로 엄청난 부패 저질러' 中언론, 부부 부패구조 분석, 2015.03.18.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55317

37) SBS, 시진핑家 조세회피 파문…'반시진핑' 정서 확산되나, 2016.04.0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4535

38) 김현재,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8.06, p.20.

39) 연합뉴스, '현직 차관도 단칼에'…베트남 정관계에 부정부패 사정 '삭풍', 2017.08.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7/0200000000AKR20170817090100084.HTML?input=1195m

40) 토지, 광물자원, BOT, BT방식의 투자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민영화, 재정, 은행, 조세, 세관, 외국인 투자, 관료 출장

정부의 반부패 임무 수행 실천 프로그램에 관한 126/NQ-CP호 의결서'를 공포[41]했다.

3) 관직의 대물림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통적으로 공직을 대물림하는 인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주요 부패행위로 꼽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혁명 원로로 공산당 요직에 올랐던 부모를 둔 예비 영도자 집단을 가리키는 '타이즈당(太子黨)'이란 용어가 이미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모의 부와 권력을 물려받는 2세'를 뜻하는 '얼다이(二代)'[42]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특히, 고위 관리의 자녀를 일컫는 '관얼다이(官二代)'들은 관직을 대물림 받아 고속승진을 거듭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얼다이 인사 관련 대표적 사례들로는 리펑(李鵬) 전 총리의 장남 리샤오펑(李小鵬·57)이 있는데, 그는 국유 전력기업 회장을 거쳐 2008년 산시(山西)성 부성장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2013년 1월에 성장에 임명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아들 후하이펑(胡海峰·46)도 2013년 5월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의 부서기에 임명돼 정계에 입문한 후 3년만인 2016년 3월에 시장으로 승진했다. 예젠잉(葉劍英) 전 국가부주석의 증손자(曾孫子) 예중하오(葉仲豪·33) 역시 2012년 말 광둥(廣東)성 윈푸(雲浮)시의 공청단 서기로 정계에 진출한 후 약 1년 만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윈푸시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에 임명됐고, 우란푸(烏蘭夫) 전 국가 부주석의 손녀 부샤오린(布小林·58)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통일전선부장은 2016년 3월 신임 대리주석에 임명돼 할아버지 우란푸와 아버지 부허(布赫)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에 이어 3대째 네이멍구자치구 수장을 맡는 진기록을 세움으로써 '관산다이(官三代)' 즉, 관직을 3대째 대물림하는 대표적 가문[43]으로 꼽힌다. 시진핑 주석 역시 아버지인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의 아들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중국 최고 권좌에 올랐다.[44]

베트남에서도 전통적으로 공직을 대물림하는 인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예로부터 관료가 되는 것을 부,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전통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립대학, 군대 등에 고위 관료로 자리 잡고 있다.[45] 이

---

41) Báo Mới, 'Không bổ nhiệm những người có quan hệ gia đình cùng làm việc', 2017.12.05. https://baomoi.com/khong-bo-nhiem-nhung-nguoi-co-quan-he-gia-dinh-cung-lam-viec/c/24189891.epi

42) 얼다이에는 선친의 부를 물려받은 재벌2세를 뜻하는 '푸얼다이(富二代)', 고위 관직의 대물림을 뜻하는 '관얼다이(官二代)', 혁명원로의 자식이 영도자 자리에 오르는 '홍얼다이(紅二代)', 인민해방군 장성 자리의 대물림을 뜻하는 '쥔얼다이(軍二代)', 스타 연예인 2세들의 활약을 뜻하는 '싱얼다이(星二代)', 문화예술인 자제들을 뜻하는 '이얼다이(藝二代)', 대형 국영기업의 직원들이 퇴직 한 뒤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즈얼다이(職二代)'등이 있다.(SBS 뉴스, 대물림 '얼다이'에 멍드는 중국, 2014.05.3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14782)

43) 현재까지 '몽고왕(蒙古王)'으로 불린 우란푸의 가문에서는 이들 외에도 수십 명이 네이멍구자치구의 요직을 맡았다. 출처: 연합뉴스, 中 '몽고왕' 우란푸 가문 3대째 네이멍구 주석 맡아, 2016.0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087600083.HTML?input=1195m

44) 연합뉴스, 중국 금수저들 '관직 대물림'…부모 후광에 고속출세, 2016.05.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0/0200000000AKR20160530092100097.HTML?input=1195m

들 전·현직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붉은 씨앗'을 뜻하는 '핫종도(Hạt giống đỏ)'로 불리며, 중국의 타이즈당과 같이 혈연에 의한 권력 대물림의 대명사가 됐다.

고위 관료의 권력 대물림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팜반동(Phạm Văn Đồng) 전 총리의 아들 팜 선 즈엉(Phạm Sơn Dương) 인민군 소장(小將), 레주언(Lê Duẩn) 전 당서기장의 아들 레 끼엔 쭝(Lê Kiên Trung) 호찌민시 세관장, 레득토(Lê Đức Thọ) 전 정치국원의 아들 레남탕(Lê Nam Thắng) 정보통신부 차관, 판딘진(Phan Đình Dinh) 전 부총리의 아들 판딘득(Phan Đình Đức) 베트남석유개발공사 이사,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 전 총리의 아들 판 타인 남(Phan Thanh Nam) 수출공사 회장과 그의 조카 보 반 트엉(Võ Văn Thường) 호찌민시 공산당 부서기장, 판 반 카이(Phan Văn Khải) 전 총리의 아들 팜반띠(Phan Văn Tỵ) 국영 황자(Hoàng gia)호텔 사장, 응웬 반 안(Nguyễn Văn An) 전 국회의장의 아들 응웬 시 히엡(Nguyễn Sỹ Hiệp) 총리 비서실장, 농 득 마인(Nông Đức Mạnh) 전 당서기장의 아들 농 꾸옥 뚜언(Nông Quốc Tuấn) 베트남 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쩐 득 르엉(Trăn Đức Lương) 전 국가주석의 아들 쩐 뚜언 아인(Trăn Tuấn Anh) 산업무역부 차관, 팜 반 끄엉(Phạm Văn Cường) 전 외교부 장관의 아들 팜빈민(Phạm Bình Minh) 현 부총리, 응웬 마인 껌(Nguyễn Mạnh Cầm) 전 부총리의 아들 응웬 껌 뚜(Nguyễn Cẩm Tú) 산업무역부 차관, 응웬반찌(Nguyễn Văn Chi) 전 공산당 정치국원의 아들 응웬 쑤언 아인(Nguyễn Xuân Anh) 다낭(Đà Nẵng)시 공산당 부서기장, 응웬 떤 중 전 총리의 아들 응웬 타인 응이(Nguyễn Thanh Nghị) 낀엔장(Kiên Giang)성 당서기장 등[46]과 같이 수많은 관직의 대물림이 만연해 있다.

4) 조직적 부패

관료들이 파벌을 이뤄 조직적으로 부패에 가담하는 것도 중국과 베트남의 주요 관료부패 행위라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대표적 파벌인 상하이방(上海幇), 공산주의청년단(共青團), 태자당(太子黨) 이외에도 석유기업 출신 관료들의 '석유방(石油幇)', 고위 관료의 비서 출신들의 '비서방(秘書幇)', 칭화대학교 출신 관료들의 칭화방(淸華幇), 공안기관 출신 관료들의 공안방, 전력업계 출신 관료 출신들의 전력방, 산시성 출신 관료들의 산시방(山西幇), 쓰촨성 출신 관료들의 쓰촨방(四川幇), 금융업계 관료들의 금융방, 철도업계 관료들의 철도방 등 출신 성분, 출신 학교, 출신 부서, 출신 직장, 출신 지역 등에서 발원한 파벌인 방(幇)이 수없이 많다.

이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 2015년 1월 4일 '중국의 반(反)부패 조치가 어떤 파벌을 척결했는가'란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비서방', '석유방', '산시방'을 중국에서 부패·비리를 저지른 대표적 3대 파벌로 지목한 바 있는데, 우선 비서방은 당·정·군 지도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책을 오래 맡아온 비서나 측근 정책브레인, 정치참모 등을 통칭한다. 이들은 서로 모셔온 주군(主君)이 다르지만 업무 상 당·정 업무 등에 능숙하고, 많은 유력인사들을 사귈 수 있으며, 또한 주군의 부상과 후광에 힘입어, 주요 보직을 맡거나, 고위층 반열에 오를 수 있는

45) 김현재,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6.03, p.16.
46) 김현재, 위의 논문, pp.17-18.

기회를 쉽게 가질 있었다. 비서방으로 분류되는 관리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를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비서 출신 저우번순(周本順) 전 허베이(河北)성 당서기을 비롯해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궈융샹(郭永祥)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 리충시(李崇禧) 전 쓰촨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지원린(冀文林) 전 하이난(海南)성 부성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모시는 권력자들의 수뢰와 축재, 가족들의 불법 수익사업을 배후 지원하고 출세를 보장받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형성했다.

석유방은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권력집단으로 이들은 국가 전략 에너지인 석유 부문을 장악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유정을 폐기하면서 도리어 채산성 있는 유정을 판매하고, 민간 업자가 세운 주유소를 과도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뇌물, 국비 등을 챙기고 국내 발주 각종 프로젝트에서도 뇌물수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위추리(余秋里) 전 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해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을 거쳐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저우융캉은 우이(吳儀) 전 부총리,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 장제민(蔣潔民) 전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 왕안순(王安順) 베이징(北京)시 시장, 쑤수린(蘇樹林) 푸젠(福建)성 성장 등과 같이 수많은 석유방의 일원들을 정계에 진출시켜 함께 석유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황제'라 불렸다.

산시방은 석탄 주요 생산지인 중국 동부 산시성 지역을 연고로 석탄광산회사 임원들과 고위 관리들로 이뤄진 인맥으로 이 지역 출신 고위 관리들과 광산 소유주들이 결탁해 이익을 공유하는 그룹을 형성했다. 산시방의 대표적인 인물은 링정처(令政策) 전 정협 부주석, 바이윈(白雲)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통일전선부장, 두산쉐(杜善學), 런룬허우(任潤厚) 산시성 전 부성장, 진다오밍(金道銘) 전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선웨이천(申維辰) 전 중국과학기술협회 상무부주석, 딩쉐펑(丁雪峰) 산시성 뤼량(呂梁)시장, 양샤오보(楊曉波) 전 산시성 가오핑(高平)시장, 왕샤오린(王曉林) 전 산시성 교통청장, 돤젠궈(段建國) 전 산시성 교통운수청장 등이다. '시산클럽'으로 불리던 이 모임은 정치·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2012년 중국 지도부 교체 때는 산시성 출신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정치국원 진입을 위해 로비할 정도로 세력이 컸다.

이 같은 파벌에 의한 조직적 부패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월 군중노선교육실천 관련 회의에서 "일부 지방은 간부 1명이 걸리면 탑이 무너지듯 내려앉을 정도로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정[47]한 바 있고,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도 2015년 3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산시성 대표 분과회의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비리사건이 발생한 산시(山西)성을 겨냥해 "조직적 부패 사건의 교훈은 매우 크다"고 반성을 촉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 역시 2015년 1월 12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은 작당해 사리사욕을 꾀하고 파벌을 짓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파벌 조성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48]하는 등 파벌에 의한 조직적 부패의 만연을 인정하고

47) 한국일보, 시진핑 신년 반부패 구호 '양봉음위''자행기시', 2015.01.13.
http://www.hankookilbo.com/v/0fc09fd6fe2e49b39473473b780d96e8

이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도 다수의 관련자들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관료부패의 주요 행위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는 호찌민시 3군 소재 봉제업체 사장 땅민풍(Tăng Minh Phụng)이 관할지역 고위관료를 비롯해 시중 은행의 사장, 직원 등 100여 명과 함께 호찌민시 3군 지역 내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이를 담보 설정해 대출 받는 수법으로 국가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비롯해 베트남 북부 중국 국경지역 떤 탄(Tân Thanh)세관의 37명 소속 세관원 전원이 세관 내에 뇌물 보관용 금고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면서 매일 수뢰한 뇌물을 분배하는 한편, 뇌물 중개 브로커를 고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뢰해온 사건 그리고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농업농촌개발은행장 등 고위 관료를 비롯해 총 126명이 가담해 허위 프로젝트를 발주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국가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49] 금년 1월에도 딘라탕(Đinh La Thăng) 전 공산당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당 서기장이 국영 베트남석유가스공사(Vietnam Oil and Gas Group)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1년 기간 중 22명의 같은 회사 또는 지사 소속 고위 관료들과 함께 국가 재산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4. 중국, 베트남 관료부패 원인

1) 인치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의 공통된 원인은 일당독재체제라는 권력구조에 기인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에서 발생하는 인치가 법치보다 우선하는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거의 모든 제화, 서비스, 고용, 생산 등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국가정책에 대해 관료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상황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과 사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가족연루 등의 부패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제에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으로 상하부 조직 관료들과 연계한 조직적 부패 그리고 관직의 대물림 등의 부패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오랜 기간 황권이 통치하는 봉건국가로서 인치가 전통적 국정운영 방식으로 존속돼왔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문화대혁명을 겪으며 인치가 중시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후 "법률에 의거, 국가를 다스린다."는 '치국이정(治

48)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파벌조성·대항세력 엄단" 경고, 2015.01.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083000083.HTML?input=1195m

49) 김현재,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6.03, pp.8-9.

國理政)'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내세워 인치에 의한 부패 청산의 의지를 표명한 것도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인치가 여전히 관료와 국민들의 인식과 행위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역시 전통적 유교국가로서 고대로부터 왕족과 관료가 법률 이상의 권위를 가졌고, 근대에 들어서 프랑스의 식민지배 기간에도 식민정부의 베트남인 관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전시(戰時)에는 공산당이 행정지침의 발효를 통해 관료들이 나라를 지배했다.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사회의 절대적 지도 조직인 공산당이 체제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행정이나 기타 국가기관은 당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고, 이를 집행하는 중앙계획을 통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산당이 이끈다."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업무가 당과 국가 간 기능적 배분이 아닌 공산당 계층 조직 간의 수직적 분업 체계에 따라 이뤄지는 사회주의 권력체제 하에서는 소수의 당 고위 관료들을 정점으로 하고, 그 이하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피라미드형의 지배체제가 형성됨으로 결국, 당의 실권자들을 비롯한 관료들의 인치가 법치에 우선할 수밖에 없으므로[50]부패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주의

중국과 베트남의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부패의 원인 중 하나는 혈연관계를 넘어서 관료조직에서 기업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만연돼 있는 유교 전통적 가족주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관계를 강조해 공사 구분을 못하게 함으로 탐욕추구형 부패를 성행케 하며,[51] 나아가서 관료들이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연고주의 그물망(network) 즉, 꽌시망을 형성하는데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태자당, 공청단, 칭화방, 비서방, 산시방 등의 연고주의 정치세력, 파벌이 형성돼 조직적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베트남에서도 전통적으로 개인은 항상 가족 공동체에 용해돼야 하는 존재로서 공동체 내 구성원은 가족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끼리는 가족 구성원과 같이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가족주의 관념이 가정, 고향, 학교, 직장, 사회, 국가 전체로 확대돼 오늘날까지 베트남 사회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52]이 같은 가족주의적 조직 문화는 상관과 부하가 부패행위를 공조하거나 서로의 부패행위를 상호 묵인 또는 비호하는 등의 부패 용인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체제는 관료사회 조직 내부의 상위 층 후원자(patron)가 자신들의 심복(proteges)들을 보호하는 소위, 우산체제를 의미하며, 국가체제 및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모든 계층의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관료들의 부패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내부 고발행위나 외부 통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해 조직적 부패 발

---

50) 김현재,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 제13권 제2호, 2008.06, pp. 18-19.

51) Holme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158.

52) Trăn Ngọc Thêm, *Tìm về bản sắc văn hóa Việt Nam, Hồ Chí Minh*, NXB.TP.HCM, 2001, pp.200-203.

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3) 선물문화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오랜 관습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 선물문화가 뇌물문화로 변질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인들의 정은 혈연관계에서 정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숙인(熟人)과의 관계에서 정을 모두 포함해 정서적 행위와 공리적 교환행위가 혼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에 입각한 각각의 정의 개념은 유교의 영향으로 예(禮)의 규정 하에 정리(情理)사회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정을 예상왕례(禮尙往來) 즉, 예가 오고가는 것으로 봤다. 이는 '호혜성(give and take)'을 중시한 것으로서 '예기(禮記)'의 '예상왕례 왕이불래 비례야 래이불왕 역비례야(禮尙往來 往而不來 非禮也 來而不往 亦非禮也)' 즉, "예는 오고 감을 숭상하는 것이니, 갔는데 오지 않으면 예가 아니며, 왔는데도 가지 않는 것 또한 예가 아니다."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선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정을 주고받는 인간관계, 즉, 꽌시를 맺는 수단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송인정(送人情), '정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일상적으로 선물, 소액의 금전, 연회, 회의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다.[53] 따라서 오늘날 중국 관료부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물수뢰 행위는 호혜성을 띤 전통적 정의 관념에 기인한 선물문화가 개혁·개방 이후 단기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 또는 꽌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뇌물문화로 급격히 변질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예로부터 베트남인들은 대인관계에서 정(情)을 우선 시 해왔고, 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관습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베트남인들은 법과 이치는 겉포장에 지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힘은 속에 있는 정에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특히, 주종이나 우열 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 선물을 바침으로써 정과 예를 표하고,[54] 선물을 받는 세력가들은 이를 자부심으로 여겨 자랑스러워해 왔다. 더욱이 매년 명절, 지인의 생일, 대소사 시 공개적인 형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뇌물을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이 같은 선물문화는 분명히 관료들의 뇌물수뢰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 번문욕례(繁文縟禮)

중국 관료부패의 주원인 중 하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얽매이는 번문욕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규제가 관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할수

53) Liu, Alan P. L., "The Politics of Corrup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1983, pp.616-618.
54) 김현재,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6.03, p.20.

록 관료가 그에 따른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벌금, 공과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관료에 의해 행정 사무 지연과 그에 따른 행정 비용 증대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료들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수뢰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상하이와 톈진을 포함한 11개 성과 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만 9천여 건의 공과금 중 5만 3천여 건이 불법이었으며, 1만 3천여 건의 벌금 중 90%가 넘는 1만 2천여 건이 정부의 시행세칙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55]

베트남에서도 행정절차가 교통 범칙금 등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료들의 뇌물수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 실례로 베트남에서 통관 절차 관련 규정을 이행하려면 5,700여 개의 행정 절차와 9,000여 개의 법률 문서를 숙지해야하는 것은 물론, 500 여개의 라이선스, 확인서, 승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서류 중에는 관세청이 아닌 타 부서의 요청에 따른 것도 있고, 기관 간 업무 공유가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상공회의소의 2012년, 2013년 조사에서는 세관 관료에게 뇌물을 준 기업이 각각 57%, 49%로 나타났다.

5) 일당 독재체제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 원인은 권력이 공산당에만 집중된 정치구조문제에 있다. 중국공산당과 베트남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유일 정당으로서 최고 권력조직이자 최고 관료조직으로 발전해 당의 고위 관료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해 국가 전체에 대한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정부가 됐다. 이 같은 일당독재 체제에서 집단과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구성원 즉, 당 관료들에게 접근해 특혜와 비호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 관료로부터 특혜와 비호를 받는 것은 여타 경쟁자들보다 막대한 이윤추구 행위를 가능케 한다. 이는 역으로 기업을 지원, 비호하는 관료가 기업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계기 또한 될 수 있으므로 정경유착을 유발한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하에서는 공산당의 권한이나 권력을 견제 또는 제약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독립적인 내부감독기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反)부패기구들 역시 당의 정치적 결정, 인사결정에 따라야 하고 기구의 예산 또한 전적으로 당에 의존하며 당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반부패기구들이 독립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관료들의 부패를 예방,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5) 김영문, 『등소평과 중국정치』, 탐구당, 2007, p.299.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의 부패문제의 가장 본질적 영역은 모두 관료사회에 있으며, 부패의 주체가 관료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나라의 부패는 관료들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형 부패로서 주로 관료들의 뇌물수뢰, 관료 가족들의 뇌물수뢰, 국가 조직 내 관료들 간 또는 내부 조직과 외부 조직들 간 연계 등 다수의 가담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관료들이 가족들에게 관직을 대물림하는 부패행위가 오랜 관행으로 만연해 있는 것도 이들 두 나라의 부패문제가 갖는 특징이다.

전술한 중국, 베트남의 관료부패가 갖는 공통된 주요 사례들의 원인은 크게 행태적, 환경적, 제도적,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행태적 측면에서는 인치와 가족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인치는 두 나라 모두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권력구조가 갖는 특성상 권력을 가진 관료의 인치가 법치 이상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두 나라의 조직문화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우리, 즉, 조직을 중시하는, 조직이 개인을 지배하는 가족주의적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조직 내 상하 구성원 간 또는 조직과 조직 간 부패 결택, 동조, 묵인 등이 발생하게 되며, 상위직의 하위직, 상부조직의 하부조직에 대한 우산체제 또한 형성될 수 있음으로 조직적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선물문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정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상호 신뢰를 쌓는데 선물을 매개로하는 관습과 이를 미풍양속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물을 가장한 뇌물의 수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번문욕례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번문욕례는 민원인들의 행정 사무를 지연시키고 행정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관료와 민원인간 뇌물수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일당독재체제를 부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국가의 모든 권력이 유일 정당인 공산당에 집중돼 있어 감시, 견제의 역할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반부패 기구 역시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공산당 체제 내 부패문제를 예방, 척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라는 절대 권력 하에서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권력이 관료들에게 집중되고, 관료들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며, 부패에 대한 체계적 감시,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베트남 두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결함 등을 개선하지 않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이들 양국에서 행하는 부패척결 행위는 현재의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권력 투쟁에서 부패는 정적 제거의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체제에서 행하는 부패척결은 권력을 가진 자는 깨끗하고, 권력을 잃은 자 또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부패한 자라는 인식을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할 뿐이다. 이는 향후 중국, 베트남의 거의 모든 고위 관료들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참고문헌】

김영문,『등소평과 중국정치』, 탐구당, 2007.

김현재,「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8.06.

_____,「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6.03.

류지웅,「중국의 공무원 부패통제 관련 현황과 법령에 관한 연구」,『2014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4.

詹復亮,『當代中國反腐敗問題 與對策』,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田心銘,『反腐敗論』, 四川 教育出版社, 1997.

李建華,『腐敗論』, 中國工業大學出版社, 1997.

黃白煉, 『遏制腐敗』, 人民出版社, 1997.

Holme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Liu, Alan P. L., "The Politics of Corrup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1983.

Ngân hàng thế giới, *Tham Nhũng từ góc nhìn của người dân, doanh nghiệp và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2012.

Trăn Ngọc Thêm, *Tìm về bản sắc văn hóa Việt Nam*, Hồ Chí Minh: NXB.TP.HCM, 2001.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국가통계국 '왕바오안' 전 국장, 250억 뇌물 수수혐의 인정, 2017.05.13.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5130905189420d6eb469fd3_1&md=20170513091911_J

서울경제, 시 주석 집권 후 첫 부패공무원 사형 판결, 2018.03.28. http://www.sedaily.com/NewsView/1RX5NBRPAA

서울신문, 中 고위층 2세들 부패도 부전자전, 2014.04.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9013010)

서울신문, 중국의 '사모님 클럽'을 주목하라, 2017.08.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8500135&wlog_tag3=naver)

세계일보,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지"…'무기징역' 간부의 늦은 후회, 2014.012.11.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11003206)

아시아투데이, 중 부패관료 아들 "항상 지름길로 가라고 배웠다"...아버지 권세로 뇌물 수수, 2014.012.1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11010006863)

아주경제, 쑨정차이 전 충칭 당서기, 288억원 뇌물수수로 무기징역, 2018.05.09. http://www.ajunews.com/view/20180509082639210

아주경제, 중국 뇌물 20억원 비리관료 징역 15년형, 2015.04.07. http://www.ajunews.com/view/20150407151935942

연합뉴스, 중국 부패 고위관료들 평균 뇌물수수액 27억원, 2014.0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10951

연합뉴스, 中 '몽고왕' 우란푸 가문 3대째 네이멍구 주석 맡아, 2016.0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087600083.HTML?input=1195m

연합뉴스, 베트남 사정한파 전방위 확산…전현직 정통부장관도 겨냥, 2018.06.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3/0200000000AKR20180603021700084.HTML?input=1195m)

연합뉴스, 베트남 '부패와의 전쟁'에 고삐…군부도 칼바람, 2018.04.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059400084.HTML?input=1195m

연합뉴스, 베트남, 공직부패 '골머리'…"피해 미변상땐 감형·사면 배제", 2015.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103300084.HTML?input=1195m)

연합뉴스, 베트남기업 66% "원활한 사업 위해 뒷돈 써야한다" 2015.0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8/0200000000AKR20150418021200084.HTML? input=1195m

연합뉴스, 中 '고위층 범죄엄단'…살인 혐의 장차관급에 사형선고, 2016.11.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176200083.HTML?input=1195m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파벌조성·대항세력 엄단" 경고, 2015.01.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083000083.HTML?input=1195m

연합뉴스, 중국 금수저들 '관직 대물림'…부모 후광에 고속출세, 2016.05.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0/0200000000AKR20160530092100097.HTML?input=1195m

쿠키뉴스, '고위 관료 부인들, 남편 이름으로 엄청난 부패 저질러' 中언론, 부부 부패구조 분석, 2015.03.18.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55317)

SBS, 시진핑家 조세회피 파문…'반시진핑' 정서 확산되나, 2016.04.5.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4535)

연합뉴스, '현직 차관도 단칼에'…베트남 정관계에 부정부패 사정 '삭풍', 2017.08.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7/0200000000AKR20170817090100084.HTML?input=1195m

한국일보, 시진핑 신년 반부패 구호 '양봉음위''자행기시', 2015.01.13. http://www.hankookilbo.com/v/0fc09fd6fe2e49b39473473b780d96e8

헤럴드경제, 중국 뇌물 규모도 대륙급?…410억 원 역대최고 뇌물 관료에 사형유예, 2016.10.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09000274

KBS뉴스, 中 완공 앞둔 65층 아파트 철거 명령…'청천벽력', 2015.12.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0310&ref=A)

국민일보, 중국군 원로 궈보슝 며느리도 당국 조사 받아, 2015.03.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62519&code=61131111&cp=nv)

News1, 아태 9억명 "작년에 뇌물 줬다"…韓 "대처 미흡", 2017.03.07. http://news1.kr/articles/?2929566

SBS 뉴스, 대물림 '얼다이'에 멍드는 중국 2014.05.3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14782

SBS뉴스, 中 '탄얼다이' 부패관료 자제들의 탐욕 대물림, 2015.10.1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6313&plink=ORI&cooper=NAVER)

Báo Mới, Nghi án nhận hối lộ vốn ODA từ JTC: Bộ Công an vào cuộc, 2014.03.25. https://baomoi.com/nghi-an-nhan-hoi-lo-von-oda-tu-jtc-bo-cong-an-vao-cuoc/c/13395244.epi

Báo Thanh niên, Công ty Mỹ bị phạt 17,1 triệu USD vì hối lộ tại VN và châu Á, 2015.07.19일자, https://thanhnien.vn/thoi-su/cong-ty-my-bi-phat-171-trieu-usd-vi-hoi-lo-tai-vn-va-chau-a-586875.html

Báo Mới, 'Không bổ nhiệm những người có quan hệ gia đình cùng làm việc', 2017.12.05. https://baomoi.com/khong-bo-nhiem-nhung-nguoi-co-quan-he-gia-dinh-cung-lam-viec/c/24189891.epi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國, 越南, 官僚, 腐敗, 反腐敗, 賂物
	영문	China, Vietnam, Bureaucratcy, Corruption, Anti-corruption, Bribe

A Study on Cases and Caus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China and Viet Nam

Kim, Hyun-Jae

Corruption occurs in all systems, including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is a serious threat and obstacle to political stability and national development. Among them, the corruption problem of the bureaucrats, who are the agents of state power, had to go through all countries and all societies. As a matter of common concern throughout the world today, the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and its aftermath are never inferior to ordinary crimes.

This is due to the inefficiency of the national function due to 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n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only hindering social unity, but it can also harm individual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and even the entire nation. In particular, the widespread bureaucratic corruption in the socialist country of the Communist Party is more serious. The corruption of bureaucracy is a monstrous existence, which not only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but also can lead to a fatal impact on the national system.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China and Viet Nam, which are the socialist states of the Communist Party, and examine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then, by looking at what they originated from, it is the purpose of the study to ultimately determin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both countries.

In order to do this, I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corruption in China, Vietnam, and the press release. Therefore, this article takes a narrative method through the synthesis and analysis of the literature data.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현재 / 金鉉宰 / Kim, Hyun-Jae		
	소 속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Em@il	hjkimgogo@ys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07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